

'기본사회 무주, 대도약 무주' 제시

황인홍 무주군수 출마예정자, 기자회견 갖고 3선 도전 공식화

황인홍 무주군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민선 9기 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3선 도전에 나섰다.

황인홍 무주군수 출마예정자는 1일, 무주군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년간의 군정 성과를 강조하며 3선 출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황 출마예정자는 "2018년 3,700억 원이었던 예산이 6,000억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는 무주의 기초체력이 그만큼 단단해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추진된 '무주형 기본소득'을 대표 정책으로 내세우고 특히 현대로템의 첨단 우주항공 산업 유치로 통해 무주가 농업과 관광 중심을 넘어 우주를 향한 꿈의 성지로 도약 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황 출마예정자는 민선 9기 비전으로 '기본사회 무주, 대도약 무주'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공개했다. 정책 방향으로는 △중앙정부 의존 없는 '무주형 기본소득' 완성, △현대



황인홍 무주군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민선 9기 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3선 도전에 나섰다.

로템 조기 안착과 첨단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 구축, △글로벌 태권도 산업의 거대한 심장으로 대도약, △농민이 진짜 부자되는 농업 대도약 실현, △머무는 관광, 돈이 되는 관광으로 '관광 대도약' 완성 등이다.

황 출마예정자는 "무주는 대도약으로 나아가느냐, 멈춰 서느냐를 결정짓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며 "검증된 경험과 중단 없는 추진력으로 터큰 무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무주=손흥기 기자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 추진

무주군, 연중 신청 접수... 환경·위생·악취 저감 종합 평가

무주군이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발굴에 나섰다.

1일 군에 따르면, '깨끗한 축산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제도로 가족 사육환경 개선과 악취 저감,

위생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농가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군은 연중 신청을 받아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농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농가는 축사 내·외부 청결 상

태와 가축 분뇨 관리, 악취 저감 노력, 방역 및 위생관리 수준 등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된다.

지정된 농가는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 모델로서 축산환경 개선과 축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무주군 내 '깨끗한 축산농장'은 31곳으로 군은 지정 농가 확대를 위해 축산환경 개선과 주민 민원 해소에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다.

/무주=손흥기 기자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상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은 지역 인재를 지원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2026년 상반기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금은 9개 분야로 △대학생 반값 등록금 △대학생 주거비 지원 장학금 △대학생 희망장학금 △특기 장학금 △예체능문화인재육성 장학금 △특성화 장학금 △대학·비전화 창업·취업 학원비 및 자격증 취득 장학금과 △고등학생 성적우수장학금 △지역고 교민학우수자 장학금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제43회 노인대학 입학식 개최

장수군은 지난 31일 사회복지관 2층 강의실에서 신입생 어르신과 내빈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회 노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43회를 맞은 장수군 노인대학은 지역 노인복지의 대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번 입학식을 통해 총 107명의 신입생을 맞이했다.

특히 93세의 최고령 어르신이 입학해 평생학습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참여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입학식을 마친 신입생들은 4월부터 10월까지 교양강좌, 노과교실, 웃음치료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활



기찬 노후 생활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 교육과 치매예방 교육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과 더불어 피부과·안과 등 무료 건강진료 서비스도 제공되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한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진안군, 농촌유학 활성화 도모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공모 선정

진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한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도비 12억 원을 확보했으며, 군비 28억 원을 포함해 총 40억 원을 투입해 동량면 일원에 농촌유학생 가족을 위한 거주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시설은 약 10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농촌유학생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구축된다.

이번 선정은 지난 2023년 부귀면 공모사업 선정에 이은 두 번째 사례로,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업 대상지는 동향초등학교와 동향

중학교 인근에 위치해 도보 10분 이내로 접근 가능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안심 학관'이 형성되어 있으며, 행정복지센터 등 생활 기반시설과도 가까이 정주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진안군은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한 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2028년 상반기에 1학기 농촌유학생 모집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진안군에는 51가구 82명의 농촌유학생 가족이 전입해 생활하고 있으며,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외지 유입 인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농촌유학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학생 인구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군수 권한대행 체제 속 현안 점검 강화

진안군은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부군수) 주재로 국·소·실별 1분기 현안 점검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향후 분기별 정례 운영을 통해 현안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고회에서는 산림, 농업, 보건, 안전, 복지 등 군정 전반에 걸친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국소실별 주요 보고내용은 △행정복지국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추진 현황, △농산촌미래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상황, △안전환경국 건설·교통, 관광, 환경 분야, △보건의 공중보건의사 공백에 따른 대응 방안 △농업기술센터 검역해충 및 돌

발해충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 체계 구축 방안 등이다.

이번 보고회는 단순 현황 보고를 넘어 부서 간 협력체계 강화와 문제 발생 시 신속 대응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져 군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도출했다.

이경영 권한대행은 "주요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부서 간 협력을 통해 군정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부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정기적인 현안 점검을 통해 군정 운영의 내실을 강화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반딧불청소년수련원 숙박형 인증프로그램 획득

무주군은 무주반딧불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하는 '1박 2일 밤하늘 별빛 산책'이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주관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심사'를 통과해 '숙박형 인증프로그램'을 획득했다.

1일 군에 따르면,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는 국가가 청소년활동의 내용, 지도자, 운영체계 및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증받은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오감 만족과 기초 소양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자연·과학·놀이 결합한 체험 중심의 활동이다.

곤충박물관 관람과 생태 임무활동, 천문과학관 별자리 관측, 사계절 별매장 체험 등이며, 생태 감수성 형성과 창의력 증진, 기초 체력 향상을 균형 있게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군, 열화상 카메라 도입 '스마트팜 생육진단 정밀화'

진안군은 농작물의 생육 상태를 보다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 3대를 도입하여 활용한 생육진단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열화상 카메라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작물의 표면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생육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 할 수 있다. 특히 하우스 내 온도 불균형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적의 재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절기 시설하우스의 고질적인 문제인 '열손실' 부위를 찾아 내는 데도 탁월하며, 농가의 난방비 절감과 에너지 효율 극대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은 구입한 장비를 활용해 농업인 상담소 및 전문가가 현장 출몰시 생육진단 서비스 제공을 방침이다.

노급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ICT기술을 농업 현장에 접목해 농가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